

전주상의 창립 90주년 기념행사 다채

근로자 가요제 · 기념식 · 특별강연 통해 화합 · 도약 다짐

전주상공회의소가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성대하고 의미 깊은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 경제계를 이끌어온 상공인들이 지난 90년의 자취를 되새기고, 다가올 100년의 비전을 힘차게 공유하는 장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가장 먼저 9월 27일 저녁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근로자 가요제'는 활기차고 열정적인 무대로 시민들과 호흡한다. 지난 20일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본

선 무대에 올라 끼와 실력을 뽐내며 열띤 경연을 벌인다. 특히 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함께 노래로 소통하는 모습은, 노동과 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축하 무대에는 감성적인 목소리의 최백호, 에너지 넘치는 마야, 감동적인 화음을 자랑하는 라포엠, 그리고 추억의 그들 동물원까지 출연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한다. 이어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라한호텔 전주 온고을홀에서는 '창립 90주

년 기념식'이 장엄하게 열린다.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내며, 지역 경제 발전에 헌신한 기업인과 유공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전달된다. 또한 '비전 선포식'을 통해 미래 100년을 향한 담대한 포부를 지역 사회와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지성과 통찰이 어우러진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을 주제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주제로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의 비전을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난 90년간 지역 상공업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자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회원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공공비축미곡매입검사 안전 관리 강화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25일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 대한곡물협회 전북지회 관계자와 함께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19년 시작된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매입검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출하농가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매입검사장 사전 점검 및 부적합 장소 제외·변경, 현장 내 운송 차량 이동경로 지정, △매입 전 정부 관리양곡 보관창고 점검과 안전요원 배치, 안전수칙 현수막 게시, △대형 포대 상·하차 도우미 지원 및 작업자 안전모 착용, 지게차 주행속도 준수(10km)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이날 오후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과거 안전사고 사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관계기관별 협력 사항 등이 포함되었으며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강조했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이번 협의회와 교육을 통해 매입검사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매입 현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주관, 기업 현장 목소리 생생히 반영

전북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성황... 관세 · 인재난 등 현안 집중 논의

전북테크노파크는 25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주)골드앤에서 2025년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 중인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총 22명의 기업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해 열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지역 현안을 진지하게 공유하며,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골드앤의 생산 현장을 세심하게 둘러보며 기업 운영의 생생한 현실을 체감했고, 최근 불거진 관세 문제, 지역 인재난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는 올해 한 해 동안 전주, 김제, 군산, 익산 등 도내 곳곳에서 총 9차례 이어지며, 지역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평소 홀로 고민해온 인력난이나 국제 통상 문제를 다른 기업인들과 솔직하게 나누며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 큰 힘이 됐다"며, "특히 (주)골드앤의 생산라인을 직접 보면서 현안을 공유하고, 전북테크노파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기업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돕는 것이 우리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이어가며,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 본사 방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합동 세일즈 활동 전개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23일,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장비 사용을 제고를 위해 롯데건설 본사를 합동 방문하며 활발한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 손민 건설수주팀장이 참석해 최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상세히 설명했다. 손 팀장은 지역업체를 활용할 경우 응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점을 강조하며, 관내 대형 건설사업에 전북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역시 건설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도내 업체의 공사 참여율 제고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롯데건설 측은 전북자치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협회의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상생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자치도 건설수주팀은 2019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와 함께 대형 건설사 본사를 방문하며 전북 건설산업의 세일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매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사업장을 포함한 대형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사용을 촉구하며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오상근 기자

천일염,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 선정

고창 해리농협, 청정 갯벌서 생산...지역 농산물 가치 주목

전북농협은 고창군 해리농협 천일염 가공사업소에서 생산한 '고창 갯벌 천일염'이 올해 대통령 추석 명절 선물세트에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석 선물세트 구성에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 지역 특산품을 포함해 국민에게 감사와 사회적 연대, 공동체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8도 수산물'에는 서해·남해·동해 각지의 수산물과 함께 고창의 청정 갯벌에서 생산된 해리농협 천일염이 담겨 눈길을 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물세트가 국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사회적 약자 위로, 공동체 가치 강화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해리농협 천일염은 청정 자연 환경 속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

며,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뛰어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선물세트 포함은 천일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농심 천심(農心天心)의 마음으로 정성껏 생산한 해리농협 천일염이 대통령 선물세트에 포함된 것은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농산물 소비 확대, 농협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은 "고창 갯벌의 천일염이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에 포함된 것은 지역 농·어업인에게 큰 자부심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전북, 케어푸드 산업 선도 비전 확인

남원서 '미래농업 전북포럼' 성황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농업 전북포럼'을 성대하게 열었다.

행사장에는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지를 힘차게 다졌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급증하는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크로바이옴 연계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발표에서 박지은 마크로젠 이사는 '바이크로바이옴의 개인 맞춤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세계적 시장 동향과 차세대 건강관리 솔루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배민정 한국식품진흥원 기술혁신처장은 국내외 케어푸드 산업의 활성화 사례와 기업지원 성과를 공유해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정도건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 산업과장은 "전북 케어푸드 산업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선도기업 3개사 육성, 연관 기업 40개사



확충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내놓아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을 좌장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대학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케어푸드 산업의 추진 전략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계 방안 등을 열린 분위기 속에서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선식 농생명축산 산업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바이크로바이옴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케어푸드 산업의 미래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데이터와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 역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산·학·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케어푸드 산업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